

# 간호사 이직률 줄이기 ... 다양한 근무형태 도입

## '야간전담간호사' 및 '2교대 근무' 운영 늘어

### 2교대 간호사 워라밸 만족도 높아 야간전담간호사 건강권 보장 주력

신입간호사의 이직률을 줄이고 경력간호사가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다양한 근무형태 도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야간전담간호사 및 2교대 근무제 등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병원의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병원간호사회(회장 박영우)는 '야간전담 및 유연근무 간호사 제도 정착을 위한 세미나'를 11월 13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병원간호사회 정책연구결과와 함께 4개 병원의 사례가 발표됐으며, 조순숙 병원간호사회 제2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야간전담 및 유연근무 실태조사= 병원간호사회가 실시한 정책연구 '야간전담 및 유연근무 간호사 제도 정착을 위한 방안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연구는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했으며, 167개 기관(종합병원 136개·상급종합병원 31개)이 응답했다.

'야간전담간호사' 운영 병원은 103개(62%)로, 응답기관 10곳 중 6곳이 운영하고 있었다. 상급종합병원의 77%, 종합병원의

58%가 운영하고 있었다.

'2교대 근무제' 운영 병원은 22개(13%)로, 응답기관 10곳 중 1곳이 운영하고 있었다. 상급종합병원의 23%, 종합병원의 11%가 운영하고 있었다.

'고정 근무제' 운영 병원은 79개(47%)로, 응답기관 10곳 중 5곳이 운영하고 있었다. 상급종합병원의 23%, 종합병원의 53%가 운영하고 있었다.

'단시간 근무제' 운영 병원은 39개(23%)로, 응답기관 10곳 중 2곳이 운영하고 있었다. 상급종합병원의 16%, 종합병원의 25%가 운영하고 있었다.

'휴일전담제'는 종합병원 3곳에서 운영하고 있었다.

△야간전담간호사 운영사례(1)= 서울아산병원은 2000년 9월부터 야간전담간호사 제도를 도입했다. 2009년에는 업무개선을 위한 TF 활동을 적극 추진해 야간전담을 지원하는 간호사가 크게 늘었고, 업무만족도가 높아졌다.

야간전담 근무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이며, 연속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현재 야간전담간호사는 월평균 94.3

명 수준이며, 120~150명 수준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다.

야간전담간호사 채용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업무량과 간호사의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야간전담간호사 운영 후 교대근무 간호사의 밤번근무 일수가 줄어들었고, 사직률이 감소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야간전담간호사 운영사례(2)= 강동경희대병원은 2006년 개원할 때부터 야간전담간호사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야간전담간호사 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포함해 약 70명이다. 입사할 때부터 야간전담간호사로 채용하며, 정규직이다.

야간전담간호사들은 자신이 만족하는 이유로 고정근무에 따른 숙련도 향상으로 업무효율성이 증가하고, 육아 및 학업을 유지하기에 용이하다는 점을 꼽았다. 반면 힘든 점으로는 야간전담 근무기간이 길어졌을 경우 2년 전후를 고비로 체력이 떨어지는 느낌을 받고, 수면 패턴의 혼란과 수면의 질 감소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전담간호사의 건강관리, 간호관리자와의 만남과 소통 활성화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야간전담간호사 도입으로 3교대 근무자의 밤번근무가 감소했고, 이직률이 낮아졌다.

△2교대 근무제 운영사례(1)= 삼성서울병원은 2016년 3월부터 2교대 근무제를 도입했다. 2교대 도입 TF를 구성했으며, 3개 부서에서 희망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2교대 표준근무 패턴을 도출

했으며, 모니터링과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했다.

2교대 근무의 장점으로 환자간호의 연속성 증가, 인계시간 및 오버타임 감소, 연속적인 오프로 인한 리프레시 기회 증가, 간호사 개인의 워라밸 향상 및 스트레스 감소 등이 꼽혔다. 연구결과 2교대 근무자가 만성피로를 덜 느끼며, 근무 사이 회복이 빠르고, 삶의 질 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밤번에 비해 낮번 근무에 임퇴되고 수술 등 업무가 집중되는 점 등이 단점으로 꼽혔다.

현재 월평균 200여명 정도가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2교대 근무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표준근무 패턴을 도출하고, 스케줄 신청원칙을 협의해 잘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2교대 근무제 운영사례(2)= 인천사랑병원은 2016년 8월부터 전 부서에서 2교대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주 40시간 근무, 1인당 환자 수는 3교대 때와 변화 없이 그대로다. 물품 카운트 방식 등을 개선하고, 인계 표준화작업을 했다.

2교대 근무에 대한 간호사들의 만족도는 지난해 79%였으며, 올해는 92.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올해 신입간호사들의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근무 연속성으로 환자 및 보호자와의 친밀감이 높아졌고, 중복업무 감소로 직접간호시간이 늘었다. 간호사들은 원하는 오프를 받기 쉬워지면서 만족도가 높아졌다.

정규숙·이진숙 기자



2019년 야간전담 및 유연근무 간호사 제도 정착을 위한 세미나

## 대구시간호사회 간호대학 교수 간담회

대구시간호사회(회장 최석진)는 '2019 간호대학 교수 간담회'를 대구그랜드호텔에서 개최했다. 대구지역 11개 대학에서 간호대학(과)장 및 교수 29명이 참석했다.

이날 서순립 경북대 간호대학 명예교수(대한간호학회 대의원총회 의장)가 '한국간호의 정책과제' 주제로 강연했다.

최근 간호계 이슈와 대한간호협회에서 추진하는 간호정책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간호대학(과)장 및 교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대구광역시간호사회 간호대학 교수 간담회

를 당부했다.

최석진 회장은 대구시간호사회의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석진 회장은 "앞으로 간호대학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간호계의 현안을 공유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숙 기자 jilee@

## 성인간호학회 총회 ... 새 회장 오익금 교수

학술지 질 관리 주력 - 2021년 창립 50주년 준비

한국성인간호학회는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11월 15일 열고 2020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새 회장으로 오익금 연세대 간호대학 교수(사진)가 취임했으며, 부회장(차기회장)으로 황선경 부산대 간호대학 교수가 선출됐다.

학회는 성인간호학회지(KJAN) 질 향상에 주력하기로 했다. 학회지를 연 6회 발간하고, SCOPUS 등 제 유지 및 질 향상에 힘쓰기로 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국내 학술지 및 학술대회 지원사업에 신청할 계획이다.

성인간호학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 문헌개발 워크숍 등을 실시한다. 회원들의 연구역량 강화에 힘쓰고, 우수연구 지원사업을 계속하기로 했다. 학술대회를 연 2회 개최한다. 오는 2021년 학회 창립 50주년을 대비해 역사편찬사업 등



준비작업에 주력하기로 했다.

학술대회는 '혁신적 교육과 연구 동향' 주제로 개최됐다. '문샷생각'으로 뒤집는 간호교육 '다학제 연구의 성공적 전략' '다학제 연구의 실제 : 수역 속도 모니터링 장치 개발 연구' 등 주제강연이 진행됐다. 우수연구지원자로 선정된 박병준(고려대 박사과정), 김정현(이화여대 석사과정) 회원에게 연구비를 수여했다. 우수포스터를 선정해 시상했다.

최유주 기자 yjchoi@

## 서울시간호사회 간호정책 세미나

서울시간호사회(회장 박인숙)는 간호정책 세미나를 11월 1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서울지역 간호부서장 및 간호관리자 60여명이 참석했다. 고령사회에서 변화하는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을 살펴보고, 간호사의 역할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고령사회에서 보건의료정책의 전망' 주제로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강연했다.

정형선 교수는 "노인인구의 급증으로 고령사회에 대한 심각성을 모두가 절감하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을 통한 건강한 고령사회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숙 기자 jilee@



다. 이어 "통합돌봄 서비스의 핵심인력으로서 간호사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며 "간호사가 역할을 잘 수행해준다면 커뮤니티케어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인숙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고령사회에 접어들어 이 시기에 의미 깊은 강의가 될 것"이라며 "다양한 정책 제안과 방안을 생각해보고 서로 논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부산시간호사회, 노숙인 등 독감예방접종 참여

부산시간호사회(회장 황순연)는 동절기 노숙인 및 쪽방촌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무료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했다. 이번 사업은 부산시가 추진하고, 부산시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한 '헬핑 핸드(Helping Hands)'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헬핑 핸드 사업은 사노피 파스퇴르로부터 독감 백신을 후원받아 예방접종 사각지대에 있는 노숙인 및 쪽방촌 주민들의 건강을 거울나기를 돕기 위해 기획됐다. 지난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올해는 부산시와 부산시간호사회, 그린터스 등 8개 기관의 재능 기부와 협업으로 진행됐다. 부산시간호사회에서는 간호봉사단을 파견해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했다.

이진숙 기자 jilee@



10월 23일 동구 쪽방상당소를 시작으로, 10월 28일 금정희망의 집, 10월 29일 화평생활관, 10월 31일 부산진구 쪽방상당소, 11월 1일 부산희망등대 종합지원센터, 11월 8일 부산 지하철 부산직역 무료급식소에서 진행됐다.

부산시간호사회는 매년 저소득층 아동,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대민사업을 실시해오고 있다.

## 게시판

### 기본간호학회 학술대회 및 총회

한국기본간호학회(회장 정승교)는 'Practical issues in fundamentals of nursing' 주제로 동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12월 6일 오전 9시30분 가톨릭대 성의교정 의생명산업연구원 2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Work and Life balance' '논문작성의 오류 : 연구윤리' '기본간호학 교재 표준화작업을 위한 기초조사 I' '최신 산소호흡기' 주제강연이 진행된다. 11월 22일까지 한국기본간호학회 홈페이지(www.kafn.or.kr)를 통해 사전등록, 초록 제출은 홈페이지 초록 제출창을 통해 11월 25일까지 접수.

<b>간호사신문</b>	발행인·편집인 신 경 림 인쇄인 김 갑 기
	1976년 12월 31일 창간/등록번호 : 서울046368
◇대한간호협회 (02) 2260-2511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4 <b>koreanurse.or.kr</b>	◇간 호 사 신 문 (02) 2260-2571 독자주소변경 (02) 2260-2571 <b>nursenews.co.kr</b>

### 통일간호학회 통일간호 학술대회

제3회 통일간호 학술대회가 '남북한 간호교육 교류를 위한 전략과 과제' 주제로 12월 7일 오전 9시 50분 이화여대 헬렌관 116호에서 열린다. 통일간호학회(회장 강윤희)가 주최하고, 통일간호포럼(대표 신경림)이 주관한다. '북한 보건의료의 어제와 오늘, 내일' '북한에서 경험한 간호교육 및 실무현

황'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준비과제' '국제간호표준에 근거한 북한간호원 교육과정 개발' 주제강연, 통일간호학회 홈페이지(www.nskn.or.kr) 또는 이메일(unification.nursing@gmail.com)을 통해 12월 3일까지 사전등록, 학술대회에 이어 통일간호학회 총회가 열린다. 문의 이메일(unification.nursing@gmail.com) 또는 010-9820-1347.

## 2020년 간호사 국가시험 대비 온라인 모의고사 서비스 오픈 안내

# 2020 온라인 모의고사 서비스 제공



- 오픈 시기 2019년 11월 1일
- 서비스 과목 국가시험 8개 과목
- 응시 방법 www.RNbook.or.kr에서 응시
- 응시 비용 회당 5,000원, 2회세트 10,000원

※ 문의처 : 대한간호협회(02-2260-2551, shjo@koreanurse.or.kr)